속죄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

(레5:1~13)

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죄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속죄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

'indicator'는 '표시기'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면 빨간 표시가 들어오고, 시동을 완전히 걸지 않고 1단계만 걸었을 때 여러 가지 계기판이 나타나는데 인디케이터입니다. 표시해 주는 장치가 인디케이터인데 인디케이터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맥주회사가 하이트를 만들어 냅니다. 1960대에 창립이 돼서 30년 동안을 업계의 2위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1995년이 지나서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이트 병맥주에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맥주병의 온도가 12도가 되면 표시가 나타나서 7~8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맥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을 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디케이터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물건에 인디케이터를 넣으므로 소비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더 편리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의 기저귀도 그전에는 애가 오줌을 싼 채로 몇 시간씩 있어서 살이 짓무르고 했는데 인디케이터를

넣어서 오줌을 쌌다는 표시가 밖에 나타납니다. 정수기에도 인디케이터가 있고 야채에도 인디케이터로 싱싱한 정도를 표시하기도 하고 인디케이터 마케팅이 점점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이트 맥주병에 인디케이터 마케팅이 적용된 것이 20세기 말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속죄를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이 무엇이냐?
이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와서 표시가 뚜렷해지면 내 마음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상태나 범죄를 위한 최적의 마음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나타나는 이유로 어제는 부지중에 계명을 어긴다고 했고 계명은 십계명이 우선입니다. 부지중에(모르는 가운데) 십계명을 어기는데 문자적으로는 십계명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선민 중에 누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부지중에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고 오늘도 부지중이 나오는데 뭘 모른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인식 상으로는 십계명을 알고 있지만 범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이고 늘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는 하나님을 친하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 범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인디케이터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자체도 잘못인데 그러나 인디케이터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범죄를 위하여 마음이 최적화 상태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앞의 4장에서 계명을 어길 때에 범죄에 대한 속죄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또 다른 속죄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에 해당되는 행위들 중에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는 것”이 속죄제를 통해 속죄가 돼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함”인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깨끗지 못한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솔하고 헛된 맹세”에 대해서 나오면서 속죄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 이외에 십계명에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해야만 되는 범죄들의 항목을 나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과 부정한 것과 함부로 하는 맹세는 속죄 제사를 통해 속해야 되는 범죄의 또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근원적인 의도는 이 세 가지가 인디케이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제부터 십계명을 범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증언하지 않는다는 증인의 문제와 부정함의 문제, 맹세의 문제 자체가 주제

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체가 주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범죄가 바야흐로 막 나타나기 시작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가리키는 인디케이터란 애깁니다.

그러면 살펴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주하는 소리'는 너희가 본바 들은 바를 재판장 앞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선민에게 있어서 언제나 해야 되는 증언이고, 어디서나 해야 되는 증언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 되는 증언으로 내 가정이나 사회 속에 사건이 일어났거나 아니거나 해야 되는 근원적인 증언인데 증거의 돌판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증거의 돌판이 언약의 증거인데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의견을 갖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의견이 있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민은 증인입니다. 내가 거래처 직원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제일 먼저 기억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순간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당신의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중역회의를 합니다. 아직 회장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중역회의의 안건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모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고 묻고 하는 중에 회장님이 결론을 내시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구의 회장님, 이 인간세상의 진짜 회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민이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역회의장을 바라볼 때 중역들의 행동을 보면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역들의 행동이 회장님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바라보아도 다른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중역회의장을 바라볼 때 기둥에 가려서 회장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중역들의 행동을 보면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회장님의 존재여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직접적인 증언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그 사실을 다 계산해 넣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계심의 사실에 대한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증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무조건하고 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범죄로 나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발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정함은 더러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정함의 반대가 깨끗함, 성결함, 청결함인데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누가 그곳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얘기를 해 봅니다. 먼저 "사체(死體)"가 나옵니다.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데 사체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11장부터 나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지고 있는지 깨끗해지고 있는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가 이제부터 범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인디케이터란 말입니다.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사체는 죽은 시체로 죽은 시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있지 말아야 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내가 손을 대면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청결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으로 밥은 밥그릇에 담겨서 밥상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밥이 치마폭에 싸여 있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김치는 김치그릇에 담겨서 입으로 들어가면 맛있지만 김치가 블라우스의 주머니에 담겨있다면 김치도 깨끗하고 블라우스도 깨끗하지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없게 되니 더럽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봅니다. 사체는 있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인데 내가 손을 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직장에 가고 싶어서 준비할 때부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있는 것인가를 물어본 적이 없다면 그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시려는 뜻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것은 십계명 중에 어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과장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과장으로 있는 자체가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물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죄로 엉켜버리고 있고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지요. 내가 극장 안에 있다면 극장 안에 있는 나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대학의 내 자식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곤합니다. 내가 벌린 이 사업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사체로 이 세상의 내 삶의 자리에서는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내 삶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지정해 주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가 있으면 더러워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

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느 회사의 과장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속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저 붙어 있으려고 밸을 다 빼놓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과장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속죄 제사를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인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와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거기서부터 진짜 직장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윗사람과 부딪혀서 나가게 되었다면 기쁨으로 나가세요. 거기서 빌빌 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인의 밸을 내놓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다가 그것이 부딪혀서 쫓겨나게 되면 쫓겨나세요. 행13:50-5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쫓겨나게 되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린 지 한 달 만에 상사와 부딪혀서 나가게 되었다면 나가면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에 '맹세'가 있어요. 맹세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매년 하신 말씀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캘린더를 제작하셨는데 7-8월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년 말이 되면 다 배포가 되고 년 초가 되면 수금을 합니다. 이 과정이 요즘 말로 '내년에는 대박이 날 것이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20년 동안 하셨고 어머니도 20년 동안 20번을 믿으셨습니다. 두 분 다 잘못하신 것이에요. '내가 내년에는 너의 캘린더 사업을 대박을 터뜨려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채 맹세를 해버립니다. '내년에는 대박을 만든다.'라고 남편이 말하는 것을 어머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그 어떤 결심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5년 뒤에는 큰 아파트를 사고 이런 결심을 한다면 이제부터 범죄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가 무르익었다는 것인데 절대로 맹세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없는데 내가 왜 맹세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증인이 되지 않는 것, 부정함의 문제, 맹세의 문제가 다 하나입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모든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준비의 최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언제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10: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애인을 만나고 있을 동안도 애인보다 먼저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으로 애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입으로 증언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이 고려돼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가서 있게 되면서 내 삶 전체가 오물의 습지로 변해버리고 오물의 습지 속에서 좀 더 잘살아보겠다고 하는 일이 헛맹세를 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삶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신 적이 없고, 내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내실 계획을 한 번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헛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식들이 서울대학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선민들의 잘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맹세가 오히려 더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선민들의 맹세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맹세한다고 너도 맹세해서 네 맹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범죄를 더 세밀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범죄들이 바야흐로 어떠한 마음상태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인디케이터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심으로 인디케이터 영적 마케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효율을 높이시고 거꾸로 범죄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를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을 이렇게 실시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인디케이터가 감지될 때마다 조금의 유보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범죄를 위해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죄가 예방되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이 친분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